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

/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은 고루한 한문 선생님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분이셨다.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늘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다니셨는데, 설록 홈스가 썼음직한 모자가 덧붙여져 세련된 도시 중년의 용모를 완성한 듯 보였다. 입시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의 수업들이 그렇듯이 한문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는 많지 않았다. 나 역시도 「적벽부」 같은 글을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 내용은 물론이고 어떤 글을 배웠는지도 거의 기억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대목이 있다. 아마 마지막 한문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제 어른이 되어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선생님께서 마지막 조언을 해 주는 시간이었으리라.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

은 반 친구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들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다. 현지^{顯知}와 묵지^{默知}.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현지, 곧 드러나 있는 지식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지닌 지식에는 그런 현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에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운다. 그렇게 배운 것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배우고 까먹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드러난 지식(현지) 밑에는 배우긴 했지만 이미 까먹어 버린 무수한 지식(묵지)이 넓게 깔려 있다. 이렇게 거대하게 생겨난 묵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묵지가 그 사람의 인격에 무언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 열심히 읽고 열심히 까먹어라. 까먹는 일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읽고 또 읽어라. 그렇게 쌓인 지식이 너희들 인생에서 커다란 자산이 될 거이다. 선생님의 말씀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었다. 당시 나는 입시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한번 입력된 지식이 내 머리에 그대로 저장되어 언젠가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허황된 생각을 하곤 했다. 까먹게 될 것이 두렵다는 핑계로 책 읽기를 피하는 무의식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살면서 책을 멀리하지 않게 된 데에는 한문 선생님의 그 말씀이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메논의 역설

플라톤은 『메논』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데서 생기는 근본적인 역설을 제기한다.

사람은 아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도 결국 탐구할 수 없다는 것 말 일세. 말하자면, 적어도 아는 것은 탐구하지 않을 걸세.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적어도 그런 사람은 탐구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도 탐구하지 않을 걸세. 무엇을 탐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 말이야. (플라톤, 『메논』, 80e)

지식의 탐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역설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탐구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으므로 탐구할 필요가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도 탐구를 못한다.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플라톤이 이런 역설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진리관을 펴기 위해서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므로 비록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영혼은 전생에서 배운 지식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전생에서 영혼이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다. 흔히 ‘상기론’으로 불리는 이런 생각은 신화적인 틀로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뒤의 철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후대의 합리론자들이 선험적 지식이나 본유관념 등

으로 계승하게 된 것으로, 우리의 경험과는 무관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메논의 역설은 우리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수궁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딱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꼭 짚어 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메논의 역설을 실마리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펼친 학자가 있다. 바로 마이클 폴라니 Michael Polanyi(1891~1976)다. 『거대한 전환』으로 잘 알려진 칼 폴라니 Karl Polanyi(1886~1964)와 형제 사이라고 한다.

마이클 폴라니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은 뒤 과학철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학자다. 폴라니는 자신의 실험실 체험을 바탕으로 지식 탐구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과학계와 특히 사회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메논의 역설에 대해 플라톤이 제시한 해결책은 “발견이란 모두가 전생에 대한 회상이라는 것”인데,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며 폴라니는 말한다.

그[플라톤]의 설명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뾰족한 다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천 년 이상 인류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진보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노력이 의미 없는 일 또는 불가능한 일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 실린 고전적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무심코 놓인 중요한 기록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메논』이 보여 주듯이, 모든 지식이 명백하게 진술될 수 있는 명시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문제를 알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메논』이 시사하는 바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해결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폴라니, 『암묵적 영역』, 51쪽)

모든 지식이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명시적인 지식일 경우에만 메논의 역설이 성립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에는 명시적인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도 있고, 이런 암묵적 지식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도둑맞은 편지」에서 편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런 편지처럼 암묵적 지식은 누구나 알아볼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폴라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수만 명 가운데 그를 정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얼굴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의 대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폴라니, 『암묵적 영역』, 31쪽)

그때까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진리가 저 바깥에 놓여 있고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 그런데 폴라니는 지식을 얻는 데 개인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한다. 이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일만이 아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축구를 하고 운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등등.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배운다는 것이고 그렇게 몸으로 체득한 지식은 말로 딱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몸이 알아서 척척 해 준다.

몸으로 체득하지 않고 글로만 배울 때 일어나는 우스꽝스러운 일로, 꽤 오래 전의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에피소드가 있다. 배우 오현경이 ‘글로 화장을 배웠어요’ 하는 에피소드이다. 요리 레시피처럼 몇 가지 절차에 따라 화장하는 오현경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다. 남편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교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애교도 글로 배우면 남편에게는 무서운 악마가 되고 만다. 키스마저도 글로 배우려고 한다. 눈을 감는다. 혀를 내민다. 혀를 오므리고 상대방 혀와 어찌고저찌고 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키스 장면처럼 어떻게 키스를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키스할 때 코는 어떻게 하

죠?” 하고 여자 주인공이 묻는 말에 남자 주인공은 몸으로 대답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마스터과 함께 사라진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러한 일은 과학이나 예술 분야의 천재들이 보여 주는 암묵적 능력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예전에 바둑 최고수에게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비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마다 바둑 고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비법이 있으면 제발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천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모두 말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천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폴라니가 암묵적 지식에 주목하게 된 데는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험이 큰 역할을 하였다. 객관적 지식을 엄밀하게 추구하는 실험실에서조차 발견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매뉴얼처럼 만들어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경험이다. 실험실의 규칙과 방법을 몸으로 오랫동안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숨어 있는 진리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처럼 폴라니는 지식의 개인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발견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실험실 작업은 사실 중세 이래로 이어져온 장인들의 작업장 전통을 이어받는 측면이 크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넣(Richard Sennett(1943~))은 스트라디바리를 예로 들며, 장인들의 작업에서 암묵적 지식이 큰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바이올린은 르네상스가 낳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안드레아 아마티Andrea Amati가 1564년에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티 가문의 공방은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 있었는데, 스트라디바리도 파르네리도 이 공방에서 현악기 제작 기술을 익혔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Antonio Stradivari(1644~1737)는 전통적인 장인들이 그렇듯이 일터이자 가정인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작업했다. 신참들은 나무에 물을 먹이거나 재료를 다듬는 일을 했고, 수련을 쌓은 저니맨들은 울림통을 절단하는 일이나 울림통과 지판을 잇는 목부분을 조립했다. 마스터는 부품을 최종 결합하고, 음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덧칠(바니시) 작업을 했다. 하지만 마스터는 자신만 할 수 있는 작업뿐 아니라 제작의 전 과정에 시시콜콜 관여했다.

스트라디바리는 두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었지만, 아버지처럼 명품을 더 이상 만들 수는 없었다. 두 아들 누구에게도 악기 명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고, 가르칠 수도 없었다. 또 다른 명인인 파르네리 델 제수Guarneri del Gesu(1698~1744)의 독창적인 작업 또한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명인의 비밀을 되살려보려는 노력이 그 당시부터 이어졌지만,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세넷은 이렇게 설명한다.

작업장에서의 일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 속에 흡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흡수 과정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습관처럼 진행되면서 수많은 미세한 작업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일처럼 통합되는 과정이다. 스트라디바리의 작업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작업장 어디에나 그의 손길이 미쳤다는 점이다. (리처드 세넷, 『장인』, 132쪽)

이렇게 작업장 곳곳에 관여하면서 온갖 미세한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마스터의 종합적인 능력은 단위 작업만 하던 도제와 질적으로 달랐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작업장만이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아주 특이한 천재들이 운영하는 과학 실험실도 이와 똑같다. 이런 실험실에서 처리하는 수많은 정보도 그 의미는 마스터만 알고 있으며, 그의 머릿속에만 들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실험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만든 실험 절차의 세부사항을 아무리 파고들어도 그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리처드 세넷, 『장인』, 133쪽)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폴라니는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렇게 보면 폴라니가 제기한 ‘암묵적 지식’은 한문 선생님의

‘묵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하다. 암묵적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몸이 알고 있는 지식이다. 한문 선생님의 ‘묵지’는 우리 머리에 한번 입력되었지만 까맣게 잊힌 지식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묵지’는 암묵적 지식보다 우리 뇌에 훨씬 넓게, 그리고 깊게 숨어 있는 지식인 것 같다. 이런 ‘묵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빠른 시일 안에 뇌 과학이 밝혀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일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이런 말을 새겨두고 싶다.

“읽고 까먹어라. 그리고 또 읽어라.”

참고 도서

마이클 폴라니, 김정래 역, 『암묵적 영역』, 박영사.

플라톤, 이상인 옮김, 『메논』, 이제이북스.

리처드 세넷, 김홍식 옮김, 『장인』, 21세기북스.

토비 페이버, 강대은 옮김, 『스트라디바리우스』, 생각의 나무.

■ **주**교